

최적화된 민원편의 제공 최선

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카페형 공간으로 환경 조성 민원서비스 개선

진안군청 민원봉사실의 파격적인 변신이 주민들로부터 화제다. 행정기관으로는 보기 드물게 카페형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민원봉사실에 파견을 나와 민원편의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평이다.

진안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천정을 오픈 구조로 개방해 목조구조물과 특이조명을 설치했다.

넓따란 민원인 대기 공간에는 정감 있는 평상이 깔려 있어 누구나 편하게 앉을 수 있다. 평상 앞에는 민원인용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파란 새싹보리가 자라고 있다. 그 앞에는 25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우리 전통소나무 육송으로 만든 멋진 테이블이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4미터가 넘는 선인장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썼다. 주민 누구나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각'이란 구조물을 설치했다. 제안함·칭찬함·불편 접수함이 마련돼 있어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적어 넣을 수 있다.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자



진안군청 민원봉사실의 파격적인 변신이 주민들로부터 화제다.

원봉사자들로부터 친절한 안내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진안군과 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매일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시부터 15시까지 민원안내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진안군이 이렇게 민원봉사실을 파격적으로 바꾼 데에는 주민 중심의 군정을 펴겠다는 전춘성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 군수는 작년 진안군수 재선거 공약의 하나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도입'을 제시했고, 그 일환으로 민원인을 위한 환경조성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전국 최초의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인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진안군 민원 종합 안내서'를 올해 처음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진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에도 응모하며 최적화된 민원업무 추진 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지방자치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항상 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염두에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호국 보훈의 달 고귀한 희생 잊지 말자”

황인홍 무주군수, 6월 월례조회서 백신접종·산골영화제 등 최선 당부

무주군은 1일 '유월'이라는 계절감을 바탕으로 참된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나태주 시인의 '유월에'라는 시로 6월의 문을 활짝 열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 내 방송으로 진행된 6월 월례조회에서 황인홍 군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두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과 후손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줄 것과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산골영화제 추진과 ▲폭염 취약계층 건강피해 최소화, ▲집중호우와 ▲장마대비 시설물 관리, ▲백신접종 독려 및 홍보, ▲의회 정례회 대비 철저를 강조했다.

6월 3일 개막하는 산골영화제와 관련하여 “대면 방식 진행을 앞두고 사전 유료 예약제 도입과 일일 관객수 제한 등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우려는 여전하다”며 “무주와 관객 모두 안전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는 등 폭염대응 환경이 변화된 시점에서 시설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의 지원방식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찾아지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행정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집단면역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주민들이 빠짐없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해서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6월 산골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셀렘, 울림,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일부터 7일, 11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9개국 9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시장마을 이회술 이장,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장수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귀가하던 중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해 위험에서 구한 마을 이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 이장인 이회술씨(62)는 지난날 31일 마을 어르신인 이순환씨를 돌보던 중 쓰러진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당시 이씨와 산서면사무소 직원 강지훈, 안미경 주무관 등은 마을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백신 접종 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박모(86)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의용소방대 출신인 이씨의 주도로 박 할머니에게 의용소방대원 활동 당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1~2분 후 호흡을 돌아오면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119의 안내에 따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지속 진행해 할머니를 무사히 인계했다.

이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편과 전주까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될 때까지 함께 했다. 의식을 되찾고 안정을 찾은 할머니를 보고 나서야 이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회술 이장은 “정신을 잃은 할머니를 발견했을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오직 할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생명에 이상 없이 회복 중이어서 다행이고 기쁘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청소년 스마트도서관 개소

진안군은 1일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무인자동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도서관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등

15명 내외의 인원만 참석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스마트도서관은 책을 손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무인자동화기기를 설치해 최대 600여권의 책을 비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진안군은 추가 비치도서를 포함한 총 1,400여권의 책을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취약시간대 불법 소각행위 점검·단속

무주군은 1일부터 취약시간대 불법 소각행위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2개 반 5명의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평일과 주말을 이용해 6개 읍·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통해 무주군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와 ▲폐비닐 등 영농자재 소각행위, 그리고 ▲일반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마을구역을 내 풍터와 하천변을 돌며 소각부산물 유무도 확인해 자발적인 제거를 유도하고 이장회의와 군·읍·면 전광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집과 논·밭, 풍터 등지에서 대수롭지 않게 행하던 폐기물 태우기가 대기 오염,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불법행위 자체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마을기업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1일 누리파크 세미나실에서 관내 마을기업 대표들과 중간지원기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2021년 마을기업 네트워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 안내 및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마을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자립 운영 제고를 위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판로확대 및 교육, 세부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됐다.

현재 장수군은 사과, 콩, 머위, 두릅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마을기업 총 7개소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국가차원 도시재생 조직·운영 필요”

황인홍 무주군수, 도시재생협치포럼 임시총회·정책포럼서 밝혀

황인홍 무주군수가 도시재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소도시 지역에 맞게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지원 전문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일 도시재생협치포럼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이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 임시총회 및 제3차 정책포럼 자리에서다.

이날 서울시 공공호텔에서 열린 임시총회 및 정책포럼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서춘수 함양군수 등 타 지자체장, 국토교통부 문성모 도시재생추진단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이상준 박사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황 군수는 정책포럼에서 1부 '지자체장이 말한다, 도시재생 4.0', '소도시에서의 도시재생 3분 스피치'를 통해 무주군과 유사한 미국 테네시주 게

틀리 버그 도시 예를 들었다. 황 군수는 “관광도시로의 정체성을 살린 게틀리버그는 관광객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됐으며, 도시가 활력을 찾게 됐다”며 “기반시설 구축과 도시 재생사업비로 도시재생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생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군의 경우도 덕유산, 적상산, 대덕산 등 국내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갖고 있다”며 “국립공원내 있는 구천동상가와 덕유산리조트가 노후화 돼 있어 재개발이 필요한 만큼 재생사업은 지역을 떠나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포럼을 통해 국가 정책의제 중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모델로 관광도시로서의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할 기반이 마련되도록 무

주군이 선도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련된 2부 '지자체별 선도 정책연구 분야 발표자로서 나선 황 군수는 '고령 친화 소도시형 도시재생' 주제로 발표, 관심을 끌었다.

황 군수는 “지역 소도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주환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수준 높은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꼽고 무주군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무주어울림센터를 비롯한 무주 로컬상권 활성화, 행복로 문화관광 사업 추진, 무주형 문화융합공간 조성, LH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협치포럼 임시총회에서는 황인홍 군수가 전북권 공동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